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 30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녹) 연중 제 29주일 (23. 10. 29.)

*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 성자의 거룩한 영을 따라 아버지만을 섬기며, 형제들을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 성자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탈출기 22,20-26):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21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22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23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24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25 너희가 이웃의 걸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26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걸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 제2독서(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1서 1,5L-10):

형제 여러분, 5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6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7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8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 계신 참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10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 복음(마태복음 22,34-40):

그때에 34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35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36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38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39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40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화답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공지 사항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웁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교회를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살피시어, 모든 일은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함을 깨닫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말은 삼가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3. 불의의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자이신 주님,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굽어살피시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시며, 유가족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4. 본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화해의 주님, 주님의 일을 하는 저희 본당 단체들을 돌보시어, 각 단체가 서로 배려하며, 활기차고 사랑이 넘치는 본당을 위하여 힘을 모으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성체성사의 은혜를 풍부히 내려 주시어

저희가 거행하는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입당 : 48 (2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봉헌 :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성체 : 501 (받으소서 우리마음)

169 (사랑의 성사)

파견 : 82 (주 찬미)

♣ 모임/회의

- 청년구역모임 : 차주(11월 5일) 미사 후, 사제관

♣ 봉사자

	오늘 주일(29일)	다음 주일(11월5일)
제1독서	이두혁 세라피노	류정연 릿다
제2독서	이정혁 루카	박세아 루치아
복사	엄채운 엘리사벳 변가인 헬레나	박동현 요한보스코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계단·화장실	이두혁 세라피노	류정연 릿다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98.50 • 교무금 € 390.00

♣ 감사 훈련 ♣

“감사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우리의 온몸과 의식, 감정, 지각을 사용하여

사고과정을 초월한 의식을 확장할 때다.

이때 우리는 감사와 살아 있음을 몸으로

느끼면서 포괄적이고 막연한 감각에

이르게 된다. 훈련을 통해 당신도

경험할 수 있다.“

- 월 파이, 「인생이 바뀌는 하루 3줄 감사의 기적」 -

*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도 모든 의식과 감정과 지각을

사용하여 온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조차도 깊이깊이

감사하게 되는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처럼 살아있는 것 자체가

더없는 감사의 조건입니다.